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09호 2006년 9월 17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주님을 본받음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당신 양들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난을 감수하신 착한 목자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양들은 고통과 박해, 모욕과 굶주림, 연약함과 유혹, 그리고 다른 갖가지 시련 가운데 주님을 따랐기에, 주님한테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업적을 이룩한 분들은 성인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업적들을 그저 이야기만 하면서 영광과 영예를 받기 원하니, 이것은 하느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영적 권고 6

우리 사부 세리핌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상흔 축일: 9월 17일

성 프란치스코는 회개 초기부터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께 깊은 신심과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1224년 라 베르나 산에서 묵상에 잠긴 그에게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당신 수난의 상흔을 새겨 주셨다.

당신 사랑의 불로 저희 마음을 태우시려고,
지극히 복된 저희 사부 프란치스코의 몸애
신비로이 당신 아드님의 수난 상흔을 박아주신
하느님,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본받고, 그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

복음은 교리이기에 앞서 생활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먼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안에서 발견하였던 그리스도는 이제 복음 안에서 생생하게 그리고 매우 가깝게 성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성인은 복음을 묵상 할수록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비 안에서 발견하였다. 즉 성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제가 되시고 인간의 신분을 취하시며 자신을 비우고 버리신 그 비하를 말한다.

신앙으로 보는 프란치스코의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는 비하의 신비를 특징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비하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 하심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성 바울로 신학에 의하면(필립 2,5-11) 그리스도께서 최종의 영광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켈라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는 끊임없는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겼고, 예리한 사고력으로 그리스도의 행적을 되새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화의 겸손과 수난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으므로 그는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자신이 쓴 글에서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중에 계시는 분으로 관상하는 동시에 그의 지상생활에서, 십자가의 겸손과 부활의 승리에서, 성체성사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 사람과 피조물 안에서까지도 그리스도를 관상하였다.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

시대적 배경: 이편지는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2 보다 기술연대가 앞서며, 내용상으로 볼때 1215년 봄으로 추정되고 있다. 폴 사바띠에는 이 편지의 사본을 볼테라에 있는 파르나치 도서관에서만 발견하였다. 이 편지는 회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신자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일종의 권고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용: 프란치스코는 회개를 생명과 사랑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배, 형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차원높은 신비주의가 깔려 있다. 영과 육 사이에서 생기는 그리스도적 생활의 긴장이 묘사되고 있고 이 싸움은 회개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벌과 회개한 사람이 받을 축복을 말하면서, 자기의 정신을 따르는 세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회개생활에로 애정이 넘치는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다.

1. 회개하는 이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마르 12,30)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마태 22,39) 사랑하고, 악습 및 죄악과 더불어 자신들의 육신을 미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오, 그런 일을 실행하며 항구하는 남녀 모든 이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들인지!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내리고"(이사 11,2), 주님이 그들을 "거처와 집으로 삼으실 것이며"(요한 14,23),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요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참조 :마태 12,50).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정배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마태 12,50)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형제들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표양을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거룩한 행실로써 우리는 그분을 낳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하늘에서 모시는 것은, 오,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위로되시고 아름다우시고 감탄할 만하신 그러한 정배를 모시는 것이 오,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아버지의 마음에) 드시고 겸손하시고 평화로우시고

달콤하시고 사랑할 만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바랄 만한 그러한 형제와 그러한 아들을 모시는 것이 오,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일인지!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참조: 요한 10,15)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나에게 맡겨 주신"(요한 17,6) "이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십시오"(요한 17,11).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참으로 믿었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요한 17,8-9). 그들을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요한 17,17). "그들을 위하여 나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요한 17,19).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간구합니다"(요한 17,20).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요한 17,11) 이들도 거룩해져 "하나가 되게 하소서"(참조: 요한 17,23). 그리고 "아버지, 그들도 내가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고"(요한 17,24), "당신의 나라에서"(마태 20,21) "나의 사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소서"(요한 17,24). 아멘.

2. 회개하지 않는 이들: 10월 월보에 계속

* 가장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 *

"잘 지냈는가?"

물어오는 당신의 안부전화는 하루종일 분주했던 내 마음에 커다란 기쁨 주머니를 달아주는 말입니다.

"고맙소"

가만히 어깨 감싸며 던진 말 한마디는 가슴 저 깊이 가라앉는 설움까지도 말강게 씻어주는 샘물과 같은 말입니다.

"수고했어"

영당이 툭툭치며 격려해주는 당신의 위로 한마디는 그냥 좋아서 혼자 걸레질 하고난 신나는 말입니다.

"최고야"

눈 찔끔감고 내민 주먹으로 말하는 그말 한마디는 세상을 다 얻은듯한 가슴부듯한 말입니다.

"사랑해"

내 귓가에 속삭여주는 달콤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고장난 내 수도꼭지에서 또 눈물을 새게 만드는 감미로운 음악과도 같은 말입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밝고 생각이 깨끗하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어떤 슬픔도, 미움도, 시기도 그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편입니다.

따라서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으니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는 사랑을 낳고 기쁨을 만들며 감사를 나누고 희망을 전합니다.

그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용철-

현실감

한 도박사가 스승에게 와서 말했다. "어제 카드 놀이에서 속임수를 쓰다가 들켰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저를 때려 눕혀서는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저에게 무슨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스승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말했다. "내가 만일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일층에서만 카드 놀이를 하겠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따지고 들었다. "왜 도박을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니까." 스승의 현자다운 간단한 설명이었다.

- 앤소니 드 멜로의 '일본 지혜'에서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10월 6-8일(금-토) 필라델피아 형제회에서 주관하는 피정이 있습니다.
- ✦ 9월 30일 토요일 12시부터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양성 워크샵과 곧 이어 10월 평의회가 있습니다.
- ✦ 재속프란치스코에 성소가 있으신 분들을 10월까지 양성교육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10월 3일 저녁 와싱턴 Franciscan Monastery에서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의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 ✦ 9월 25일 부터 사부님의 축일을 맞아 9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 ✦ 9월 2일 홀리 네임 칼리지에서 안티모 신부님을 모시고 평의회를 하였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 5년전 9/11 테러사태로 뉴욕, 펜타곤, 펜실바니아에서 희생을 당한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
- ✦ 우리 형제회에 새로 지원하신 분들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의 설립을 위해 ...

9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신부님 강론
미사 / 공지사향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14번 주를 따르리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6번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마침: 52번 주님 부르면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9월 4일: 광재옥 로사

10월 간식담당

이장훈, 김준호, 허명자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